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정보도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 북부신문

## 동북일보

### 강북구의회, 제147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은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14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의 세부일정

으로는 2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 동북일보

# 강북구의회, 케이블카 유치촉구결의안 부결시켜

### 박겸수 강북구청장 시정연설, 내년도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다짐 강남연 의원, 근무시간 축소하고 솔 마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해이 성토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가 제147회 2차 정례회를 시작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강북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2월 15일까지 23일간의 회기를 결정한 후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다.

박 구청장은 2011년도 구정목표로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따뜻한 행정 △공정하고 보편 있는 깨끗한 행정을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먼저 복지 실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 인증, 보건소 이용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만 6세 이상 아동들에게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영구치의 홈배우주기 등을 약속했다.

박 구청장은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다산아카데미 운영, 집에서 10분 거리의 풀뿌리도서관 건립, 삼양초교와 송정초교에 영어체험센터 운영,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과 공동이용을 위한 협약체결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열린 행정을 위해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정보 공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와 지혜를 모으는 운영 등을 약속했다.

그 밖에도 박 구청장은 따뜻한 아름다운 문화환경 조성하고 21세기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면서 내년도 예산액은 총 2,866억3천만원, 일반회계 2,772억3천만원, 특별회계 794억



▲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책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만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규모 2,772억3천만원 중 예산 대비 2.3%가 늘어난 수준이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경희 기획재정국장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했다. 구분승 김도연 김동식 이백균 이준순 의원을 선임했는데, 본회의 후 예정되어 있던 구민자문위원회에 재선의 이백균 의원, 부위원장에 이준순 의원을 선출했다.

이성희 의원은 제146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북한산 케이블카 유치촉구결의(안)을 이날 다시 발의했다. 구정목표에 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 들어간 결과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5명이 나와 더 이상 진행부나의 처리에서 케이블카는 거론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날 구청장 시정연설에 앞서 이성희 의원과 같은 한.미.대사 소속의 이영선 의원이 5분 발언권을 얻어 '백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강북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리 분위기를 띄웠지만 의원들은 각기 당면의 나소선에 따라 표결을 했다.

강남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파들은 간부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를 폭로해 감악 놀라게 했다. 강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구청의 국·과장들과 동종들 40여 명이 우유동 유원지의 한 음식점에서 2시간 동안 즉구대회를 한 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며, 국·과장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이럴 수가 있다고 성토했다.

(허성수 기자 srngh@hannam.net)

# 박겸수 강북구청장 의회에서 시정연설

###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 감동복지 실현 예산확보 위해 각종 행사성 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년 대비 10% 삭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근성의 장남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과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새로운 출발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희망강북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년이라는 생각으로 세 가지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얼굴을 맞은 소통은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구민께서 주시는 말씀은 직간접적으로 구정에 반영되며,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소통을 통한 구민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과 교육을 책임지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드리기로 하는 복지가 아닌 구민의 자립을 돕는 생산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자 평생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무급 감소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정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계회 수입 이전부터 사업추진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 또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주민이 책임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생활할 경우 민간건설업체와 병행해 SH공사와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주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강북구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구정방향에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감동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도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있는 것과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또한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장애인공, 장애인복지 지원센터 무료급식 등을 지원하고, 가정 및 생활시설에서 거주하여 지역사회와 단절된 장애인들을 위해 시장보기, 요리하기, 이웃사랑기 등 직업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체험형을 운영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기능을 갖춘 미아동 노인복지회관과 수유동 노인복지회관의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관토록 하는 등 정원과 영정을 다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구신 어르신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강북구의회 147회 정례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열악한 보육시설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이이를 낮고 기쁘게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준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산부·노약자·장애인 등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1일 4회 운행하여 보건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올바른 치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 1명 6세부터 초등학교 및 취학 통지서를 받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구치의 홈을 메워줌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평생치아건강관리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디자인하는 으뜸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30억원을 지원하여, 우리 강북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과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수강을 원하는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수강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개선사항에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등 전통 문화축제를 운영하여 나라의 문명을 바꿨던 역사들을 되돌아보고 강북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으로 기대가 큰 만큼 안전과 편의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준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산부·노약자·장애인 등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1일 4회 운행하여 보건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올바른 치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 1명 6세부터 초등학교 및 취학 통지서를 받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구치의 홈을 메워줌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평생치아건강관리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디자인하는 으뜸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감동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도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있는 것과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또한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장애인공, 장애인복지 지원센터 무료급식 등을 지원하고, 가정 및 생활시설에서 거주하여 지역사회와 단절된 장애인들을 위해 시장보기, 요리하기, 이웃사랑기 등 직업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체험형을 운영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기능을 갖춘 미아동 노인복지회관과 수유동 노인복지회관의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관토록 하는 등 정원과 영정을 다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구신 어르신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성이